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1. 10. 12.(화) 배포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원	보도자료 PRESS RELEASE	감귤아열대연구과장 김창윤 ☎ 760-7260	
		아열대과수팀장 오명협 ☎ 760-7271	
		홍보담당자 고희열 ☎ 760-7581	
동영상(웹하드) :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 :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후속자료 : 없음	

국내 육성 신품종 ‘스위트골드’ 키위 본격 수확

- 올해 500~550톤 생산 예상...홍콩·말레이시아 등 100톤 이상 수출 추진 -

- 국내 육성한 신품종 ‘스위트골드’ 키위가 지난해보다 6일 빠른 지난 9일 첫 수확됐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은 제주시 애월읍 농가에서 ‘스위트골드’ 키위를 첫 수확한 가운데 이달 말까지 본격적으로 수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스위트골드 키위는 2014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농업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속살이 황금색이며, 16~20브릭스(°Bx)의 고당도 품종이다.
 - 현재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대표 고혁수)에서 전용실시 계약을 통해 제주에서만 재배되고 있으며, ‘한라스위트’ 상표로 유통되고 있다.
 - 도내 스위트골드 생산량은 △2016년 2톤 △2017년 6톤 △2018년 50톤 △2019년 230톤 △2020년 360톤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올해 96농가·46ha에서 500~550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선과작업을 거쳐 500g 투명용기 4~6과 소포장 2개를 한 묶음

음으로 포장해 전국 하나로마트로 출하할 예정이다.

- 올해산 출하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2020년 기준 농가 수취가격은 A등급 3,900원, B등급 3,400원, C등급 2,400원, D등급 1,700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홍콩·말레이시아 등 수출물량은 100톤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 2018년 동남아 시범 수출 이후 2019년 29톤, 2020년 30톤 수출됐으며, 현지 소비자 반응이 좋아 수출 물량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스위트골드’ 농가별 당도 등을 사전에 3회 이상 검사해 수확 기준에 맞는 키위를 수확해 유통과정에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오명협 아열대과수팀장은 “국내 육성 고품질 키위 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후속 전 당도 8브릭스 이상만 수확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육성 내역	■ 육종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 교배내역: 2003교배(퍼스트엠퍼러 x 옥천)
	■ 품종등록: 2014년(제5151호)

보급 현황	■ 2014년 2월 전용실시 계약(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 한라스위트 상표 유통
	■ 제주도 재배 면적: 2019년 96농가 40ha

품 종 특 성	■ 과중: 70~100g / 당도 16~20 ° Brix / 수확기: 10월 하순(만개후 160~170일)
	■ 감미가 높은 품종으로 과육이 연하게 완전후숙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음
	■ 과육색은 녹색으로 후숙 후에도 엷록소 분해가 완전하지 않음
	■ 과실 모양은 계란형 또는 타원형

재 배 유 의 사 항	■ 균일한 품질유지를 위해 생육기간 동안 나무가 그늘지지 않도록 관리
	■ 90~100g 정도의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결과지 하나에 2개 이내로 착과 필요
	■ 상품과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열매숙기보다 꽃피기 전 꽃봉오리 숙기 실시

[보도자료]

○ 국내 육성 신품종 ‘스위트골드’ 키위 수확 시작- 제주신문 6면

국내 육성 신품종 ‘스위트골드’ 키위 수확 시작

국내 육성 신품종 ‘스위트골드’ 키위가 지난해보다 6일 빠른 지난 9일 첫 수확됐다.

스위트골드 키위는 2014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농업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속살이 황금색이며, 16~20브릭스의 고당도 품종이다.

현재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대표 고혁수)에서 전용실시 계약을 통해 제주에서만 재배되고 있으며, ‘한라스위트’ 상표로 유통되고 있다.

올해 96농가·46ha에서 500~550t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선과작업을 거쳐 500g 투명용기 4~6과 소포장 2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해 전국 하나로마트로 출하할 예정이다.

올해산 출하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년(A등급 3900원, B등급 3400원, C등급 2400원, D등급 1700원)과 비슷하거나 다소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산 출하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년(A등급 3900원, B등급 3400원, C등급 2400원, D등급 1700원)과 비슷하거나 다소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허명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제주신문 6

○ 스위트골드 키위 올해 첫 수확...예상 생산량 550t- 뉴제주일보 6면



지난 9일 제주시 애월읍 농가에서 올해산 스위트골드 키위를 수확하고 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공)

스위트골드 키위 올해 첫 수확...예상 생산량 550t

국내 육성 신품종 '스위트골드' 키위가 지난해보다 6일 빠른 지난 9일 첫 수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중)은 지난 9일 제주시 애월읍 농가에서 스위트골드 키위를 첫 수확한 가운데 이달 말까지 본격적으로 수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스위트골드 키위는 2014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농업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속살이 황금색이며,

16~20브릭스의 고당도 품종이다.

현재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대표 고혁수)에서 전용실시 계약을 통해 제주에서만 재배되고 있으며, '한라스위트' 상표로 유통되고 있다.

도내 스위트골드 생산량은 2016년 2t, 2017년 6t, 2018년 50t, 2019년 230t, 지난해 360t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96농가·46ha에서 500~550t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지우 기자 jwregos@jejuilbo.net
뉴제주일보 6

○ '제주서만 재배' 신품종 스위트골드키위 수확 본격- 제주일보 7면



제주시 애월읍 한 농가에서 스위트골드키위를 수확하고 있다. 스위트골드 키위는 2014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농업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16-20브릭스의 고당도 품종이다.

'제주서만 재배' 신품종 스위트골드키위 수확 본격

애월읍서...작년비 6일 빨라

국내에서 육성된 신품종 '스위트골드' 키위 수확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보다 6일 빠른 9일 제주시 애월읍 농가에서 첫 수확이 이뤄졌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스위트골드 키위는 2014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농업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16~20브릭스의 고당도 품종이다.

현재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서 전

용실시 계약을 통해 제주에서만 재배되고 있고 '한라스위트' 상표로 유통되고 있다.

올해 96농가·46ha에서 500~550t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확된 키위는 선과 작업을 거쳐 500g 투명용기 4~6과 소포장 2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해 전국 하나로마트로 출하될 예정이다. 올해산 출하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농가 수취가격(kg당)은 A등급 3900원, B등급 3400원, C등급

2400원, D등급 1700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콩과 말레이시아 등에도 100t 이상 수출될 예정이다.

농기원은 농가별 당도 등을 사전에 3회 이상 검사해 수확 기준에 맞는 키위를 수확해 유통과정에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기원 관계자는 "국내 육성 고품질 키위 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후속 전당도 8브릭스 이상만 수확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ilbo.net

제주일보 7